

안철수 마이웨이 고수...천정배 “전략적 논의 필요”

국민의당 아권통합·연대 갈등 확산

이상돈 긍정 박주선 부정적 입장
광주시당 김한길 사퇴 촉구
재야 원로, 수도권 야권 연대 압박

국민의당이 아권통합·연대 논란으로 자중지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야권 통합·연대에 대한 안철수 공동대표와 김한길 선대위원장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도부 전체의 균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 선대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패권주의 정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야권의 개헌선 저지를 위한 뜨거운 토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통합 제안은 진정성과 절박성을 담은 정중론 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김 대표가 통합을 제안하면서 계파패권주의 정체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그 실천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김 대표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정산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더민주와 본격적인 토론과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이 통합 불가 입장으로 결론을 낸 만큼 당 대 당 통합보다는 선거연대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김 선대위원장은 수도권



조정관 국민의당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이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연대 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연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지 말하려면 많이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다 열어놓고 싶다”고 답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여당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연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연대 불가”를 주장하는 안 대표와 다른 의견이다.

반면, 안철수 공동대표는 통합은 물론 연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 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노원구 출마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소위 정치 9단의 비웃음거리가 돼도 아내는 말한다. ‘처음 시작

할 때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괜찮다’고”고 말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마이웨이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핵심 지도부 간 입장차는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상돈 선대위원장은 수도권에서의 야권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지만 박주선 최고위원은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민의당 광주시당 조정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한길 선대위원장의 통합 지지 발언은 지금껏 야당이 무능을 반성하지 않고 선거철만 되면 ‘반여당 집

결’로 반사이익을 가져온 논리와 같다”며 김 선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권의 통합이나 연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국민의당에겐 부담스럽다. 한완상 전 부총리와 함세웅 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재야 원로들은 다시민주주의포럼, 민주주의국민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수도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야권 단합과 2016 총선 승리를 위한 수도권 연대’를 구성하고 이날 국회에서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독점적인 거대 정당이 출현한다면 현재의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할 것”이

라며 “우리의 요구는 오직 단 하나 (통합이 안 되면) 수도권에서의 야권 연대를 반드시 실현하라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부총리는 TBS라디오에 나와서도 “집권당이 180석을 얻게 되면 영구 집권 체제로 들어갈 것”이라며 “통합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합류를 기대했던 더민주 송호창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잔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도 1석이 부족해 제동이 걸리는 등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숙의배심원 200명 공정성 확보 관건

국민의당 광주 경선 방식...여론조사 병행 여부도 관심

국민의당이 20대 총선 광주지역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을 ‘숙의(熟議) 배심원단제’로 최종 결정하고 세부적 시행 규칙 마련에 나선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배심원단의 구성과 규모, 여론조사 병행 여부 등을 놓고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특정 후보에 유리한 방안이 채택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광주시민의 상식에 걸 맞는 공정한 경선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지난 2010년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 때처럼 상당한 파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당은 광주지역 후보 공천과 관련, 일반 배심원 100명과 전문 배심원(시민사회·학계·핵심당원) 100명 등 200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 배심원 선정을 둘러싸고 당내 특정 인사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각종 설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여론조사 병행 여부 및 반영 비율

등을 놓고도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한 방식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날 경우 단독 후보로 추대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 간의 여론조사 편차가 크지 않을 경우, 면접 점수 등을 합산해 2~3배수로 후보를 압축한 뒤, 숙의배심원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당은 공관위 회의를 통해 이르면 9일 구체적인 광주 국회의원 후보 경선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공관위 관계자는 “광주지역 후보 경선 방식은 일단 200명 규모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 외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이 없다”며 “최대한 배심원 모집단을 크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심번호 여론조사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전남지역 후보 공천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치 바꾸는 길,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안철수 서울 노원병 출마 선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8일 서울 노원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카페에서 상계동 주민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를 읽는 형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안 대표는 “부산으로 가라, 서울 어디로 가라” 등 여러 얘깃거리가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곳에 남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유는 상계동이 정치의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정치권에 낯은 관행, 관성 앞에서 지난 3년 반은 짧았고 저는 부족했다”며 “하지만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

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의 어록을 인용하며 “저 역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할 일이 없다면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결기를 보인 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믿음으로 투박투박 갈아갈 것이다. 그 길에 한 번 더 동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원 병에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의 공천이 유력한 가운데 더민주에서는 황화화 전 국회의원, 이동환 전 혁신위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구 찾은 더민주 김종인 ‘홍의락 구제’ 시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8일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비례대표 홍의락 의원에 대해 “너무 심려 안 해도 된다”며 구제 방침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4·13 총선 출마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에는 복음의 흥 의원을 포함, 김부겸(수성갑), 정기철(수성을) 예비후보 등 3명이 출마했으며, 흥 의원은 이날 면담에 불참했다.

김 대표는 “대구에는 3명만 (더민주)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고 다음 사람 내보낼 인적자원이 확보 못하고 있다. 그런 점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민주가 이력저렴 것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저 명분에 사로잡혀 이와 같은 사례를 남기게 돼 매우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20% 컷오프에 대해서 이전 지도부에서 한 일임을 설명한 뒤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당무위에서 (위임) 받았기 때문에 공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대구 방문과 관련,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후보들을 격려하고 이번 총선에서 의원을 배출할 계기를 마련할까 해서 왔다”며 특히 김부겸 전 의원을 지칭, “이번에 기필코 당선돼 중앙무대에서 대구를 대변하는 정치행위로 도약할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카메리아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벚꽃+온천 여행~!!

출발일 3/29, 4/3, 4/10, 4/12, 4/18, 4/24, 5/8, 5/14, 5/22, 5/29

-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아마가세 고급 팬션 온천여행 4일 ₩499,000~
- ▶ [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4일 ₩559,000~
- ▶ [고품격] 전통료칸 온천 여행 + 후쿠오카 특급 4일 ₩599,000~

포함 : 선박왕복, 유류세, 부두세, 일정표상의 일정, 입장료, 가이드비, 국내수송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장가계 전세기!!!

▶ 출발일 3월 9일 ~ 6월 1일까지 매주 수, 토요일

신속	무안-장가계	3박5일 ₩ 699,000
		4박6일 ₩ 699,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싱글차지, 가이드&기사경비(50%), 단체비자(₩35,000)		
품격	무안-장가계	3박5일 ₩1,050,000
		4박6일 ₩1,090,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싱글차지		
고품격	무안-장가계	3박5일 ₩1,150,000
		4박6일 ₩1,190,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싱글차지		

무안-상해, 황산, 항주 특가!!

▶ 3/30 단 하루!! 무안-상해, 황산, 항주 4일 ₩599,000

▶ 3/28 단 하루!! 무안-상해, 황산, 항주 5일 ₩649,000

포함 : 특전 | 1. 전일정 조식점심저녁식사
2. 현지 특별식제공 [동파육, 사천요리, 삼겹살등 한식]
3. 발마사지포함 4. 항주서호유람선, 송상가우쇼 포함
5. 기사/가이드팁 포함
불포함 : 매니팁 및 기타 개인비용, 중국단체비자 (₩35,000)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 화요일 출발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 화요일 출발
▶ 면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니팁,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매니팁,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접관광, 석식2회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7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접관광, 석식2회

▶ [선박] 장흥-제주도 3일 ₩20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접관광, 석식2회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45,000~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쯤더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공동조각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보험,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차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없었던(단, 기사/가이드기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